

11. 조선중기의 회화(2)

1. 조선 중기 영모화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조선중기의 영모화

- 영모화 부문에서 당시 풍미했던 수묵사의적(水墨寫意的) 화풍에 기초해 형식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한국적 서정성이 담긴 회화세계 이루어냄; 이는 영모화가 나아갈 길 제시한 것.
- 우도(牛圖)의 화풍은 윤두서로 이어짐.
- 준마의 화풍은 윤두서, 윤덕희, 윤용 까지 이어짐
→그 후 장승업에서 빛을 봄.

창강 조속(滄江 趙涑, 1595-1668)

<노수서작도>

<수금도>

<산수도>

<금계도>

청록진채의 고사인물화. 화면 상단의 어제발문(御製跋文)의 말미에 “歲乙亥翌年春 命圖見三國史 吏曹判書臣金益熙 奉教書 掌令臣趙涑 奉教繕繪”라 기입되어 있어 조속의 친필작일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도록 어명이 내려진 “乙亥年의 다음 해(1636)”와 그림과 글씨가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1656년(김익희와 조속의 官歷을 고려한 것이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큰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매창(梅窓) 조지운(趙之耘, 1637-1691)

조속의 아들

<매상숙조도>

퇴촌 김식(退村 金植, 1579-1662)

김시의 종손, 金祺의 손자

家法 따라 물소를 그림

<우도>

※서정적인 동물화 특징 잘 드러냄

이정(李霆, 1554-1626)

-자는 중섭(仲燮), 호는 탄은(灘隱)

-세종대왕의 현손

-30대부터 목죽으로 명성을 얻어 조선 목죽화의 비조라 일컬어짐.

《삼청첩(三清帖)》

-41세, 1594년 12월12일 이정의 별서인 공주의 월선정에서 죽화 12면, 난죽 1면, 매화 4면, 난화 3면을 그리고 제시를 덧붙인 시화첩. 이듬해에 간이 최립과 석봉 한호에게 서문과 글씨를 맡기고 차천로에게 제시를 받아 장첩하였다.

-사생력이 돋보임.

<풍죽>

탄은 묵죽화의 완숙기인 만년기 작이라 여겨짐.

어몽룡(魚夢龍, 1566-1617)

목포도의 황집중, 묵죽의 이정과 더불어 목매로 이름나, 조선 중기 문인화 삼절이라 불림.
-청담하고 고아한 정취를 강조.

황집중(黃執中, 1533 ~ 1593 이후)

목포도로 유명

2. 남종화 수용

▷조선중기 남종화 수용의 사례로 언급된 작품.

- 이정근 <미법산수도>
- 이영윤, <방황공망산수도>
- 이정, <한강조주도>

▷중국 화보를 통한 남종화의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짐.

『**고씨화보**』(역대 명공화보). 명나라때인 1603년 고병(顧炳)이 편찬한 그림책. 남북조시대부터 명나라에 이르는 백여 대가의 작품이 도판으로 소개되고 그 특징까지 써어진 책. 서문을 주지번이 씀. 초간 수택본(手澤本)은 아주 귀해서 1608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이호민이 값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고 동행했던 화원으로 하여금 모사해 오도록 했음

『**당시화보**』: 17C중엽 황봉지가 유명한 唐詩 1백여편 골라 동기창 등이 글을 쓰고 채원훈 등이 그림을 그려 엮은 화보

『**개지원화전**』: 1679년 남경(南京)의 개지원(介子園)에서 초집 5권 간행. 회화이론과 도해된 작화법, 고인(古人)의 전도(全圖) 등을 엮은 화보. 이어(李漁)가 간행 동기 마련하여 그의 사위인 심심우(沈心友)가 경제적 지원. 왕개(王概)가 초집 편찬 주관.

2,3집은 다색쇄 다판화로 간행

1708년 초집 재판

1782 소주에서 재판 간행

등등

▷1606년 명의 사신 주지번의 내조와 오파화풍의 전래

(ex) 《천고최성첩》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백인산, 『조선의 묵죽』, 대원사, 2007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이선옥, 『사군자, 매란국죽으로 피어난 선비의 마음』, 돌베개, 2011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